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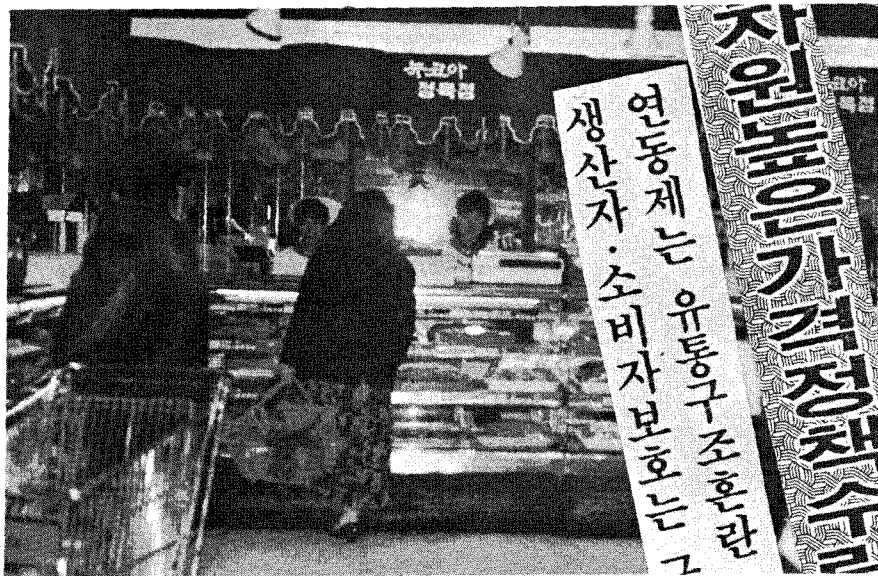
육류유통효율화 방안

—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 —

소비자는 용도에 적합한 쇠고기를 부위별로 손쉽게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공정한 가격형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육 생산에 매진 함으로써 소득증대의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는 취지하에서 1968년 7월부터 70년 12월까지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실시되었으나 연동제로 유통구조 혼란과 파급되는 악영향에 기인 다 시금 차원높은 가격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쇠고기 부위

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육류부위별 차등제가 홍보의 미실시로 정착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삼 유통정보측면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연구검토가 따른 전략적인 홍보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이 정착시행되기 위해서 우선 식육의 유통의 효율적인면을 기술하는것이 우선이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한다. <편집자 주>



1. 서론

축산물의 국민경제의 위치는 국민총생산면에서나 농가소득 및 소비자의 식생활개선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농업중 축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은 축산업생산의 부가가치가 GNP 및 농림수산업의 부가 가치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 중 고급재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및 우유의 소

비가 계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의 향상에 따른 고급식품, 특히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 축산의 형태가 전통적인 부업적차원에서 전문적상업축산으로 변화, 이같은 전업의 의미는 축산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높이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그런, 축산물의 수요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품목들이 국내생산으로 자급이 되고 있으나 쇠고기를 비롯 육류의 생산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제대외적인

종속세력에 밀려 자구책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특히 소득탄력성이 높은 쇠고기의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여 국내 생산기반 및 생산여건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축산물소비의 증가추세는 사료원료의 도입을 증가시키며 국내식량의 자급도를 낮추고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오는 혼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축산물 수입액 중 쇠고기수입액은 <표>에서 보면 83년 99.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초래되는 시점에서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식육산업의 문제가 현실적

표7-2 사료 및 주요축산물의 년도별 수입액, 1976~83

단위 : 1,000달러, %

년 도	계	사 료	축산물(A)*	우육(B)	B/A
1976	111,938	110,943	995	994	99.9
1978	331,595	261,551	70,044	51,152	73.0
1980	426,744	420,453	6,291	6,227	99.0
1981	545,221	481,729	63,492	63,286	99.7
1982	668,145	537,936	130,209	130,003	99.8
1983	▲760,618	635,225	125,393	▲125,218	99.9

*우육, 돈육, 계육, 난류만 포함된 것임.

자료 : 한국사료협회, 「사료편람」, 1983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84.

으로 부각되면서 유통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시 되는 차원에서 유통은 경제발전의 산물이지만, 경제발전의 진전은 바로 분업정도의 심화를 의미, 유통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더우기 육류유통은 그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체·지육·정육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수집, 중계, 판매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라 멀어져 가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이 유통개선의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체유통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축시장의 구조나 거래방법등 유통

기능수행상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요인이 개재되어 생체유통의 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지육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도 그 시장구조면에서나 운영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정육유통을 담당하는 소매시장도 부정계량·혼육판매·부당등급등 불공정거래가 존재, 농가를 떠난 생축의 거래에서 정육의 상태로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불공정거래와 유통의 비효율화로 일관하며 또한 도매 및 소매시장에서 가격통제로 생산기반이 위축, 당국에서 저물가정책을 강력하게 고수함으로써 산지소값은 한없이 치솟는데 반하여 신고가가격은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신고는 접수를 거부하므로, 정육업자들은 소값이 상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라 멀어져가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이 유통개선의 기본과제다.

승하였을 때 신고가격은 올릴 수가 없어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유통질서를 혼잡케하고, 정육의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정육점에서 신선육으로 판매하는 형태와 80년 이후 57개 기업체가 수입육을 부위별로 포장하여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등 일관성 없는 정육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에게 커다란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생체·지육·정육의 유통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한 육류유통의 효율화는 생산력증대를 기대할 수 없으며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수급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II. 본론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계층간에 소득배분이 불균등하게 되고 경영에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며 생산에 대한 의욕이 저하·계층간의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통상 공정한 거래 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시장질서를 지킬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제반 조건이 불일치한 상품의 수요나 공급체제, 독과점상태나, 거래자 상호간의 시장거래력에 커다란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거래가 어렵다.

특히 축산의 경우 완전경쟁 시장이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개개의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할 수 없고, 수요의 측면에서도 도매시장이 지정하는 소수의 중매인 만이 경매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은 지육과 부산물거



래에 있어서 다수의 중개인과 매참인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급의 측면에서의 도매시장은 완전경쟁을 취하므로 수요의 측면에서도 도매시장구조를 완전경쟁 상태로 개편하여 가격형성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육류유통의 개선화방안으로 물적유통시설의 확충(저장·작업장및 경매장 시설의 근대화, 운송의 현대화)과 시장 구조의 개편 등을 서술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차와 혁신적인 변혁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들이다.

이에 현 유통문제중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쇠고기 소비자 가격제도이다.

고정거래를 위해서는 상품의 표준화와 등급차가 필요한데,

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표준화와 등급차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품종의 다양함, 크기, 색깔, 사육방법에 따라 품종의 차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도매시장에서는 상장시도살 후 두, 족, 내장을 제거하고 박피한 지육을 양분해 중량만 표시하여 경매하고 오랜 경험에서 육질과 정육율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중매인 만이 경매에 참가(축협 공판장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kg이 표시되어 나타남)하므로 수요면에서의 도매시장의 공정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준화와 등급화가 되지 않아 소의 종류와 육질에 따라 가격차가 나타나지 않아 생산자도 좋은 육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등한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좋은 육질의 쇠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육의 표준화와 등급화의 실시를 위한 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거래의 능률화와 공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즉, 육류유통의 개선방안은 산지시장에서의 생체유통과 도매시장의 지육유통, 소매시장의 정육유통의 3단계 시장구조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통행정기구의 개편이 아니고서는 극히 미비한 움직임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육류소비자 가격 제도가 유통상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시장경락가격의 변화에 따른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러나 산지 가격과 경락가격이 등급에 따라 3배 까지 차이가 나고, 산지가격과 경락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아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즉, 정

상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쇠고기 가격은 산지생축 가격에 수송비등 유통비용이 가산되고 도매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지육경작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소요유통비용과 적정이윤이 가산되어 소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가격형성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생축 가격은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는데 반하여 소매가격은 가격표시제에 의하여 상한가격이 묶여 그 한도내에 서만 판매가 허용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유통현안에 육육가격의 일원화와 육류간 가격 격차의 형성-공정한 가격형성과 생산자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식육의 유통효율 증진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부위별 차등제의 필요가 급진장 식육가격의 적정화문제는 식생활은 물론 축산발전과 전체경제의

안정과도 직결된다.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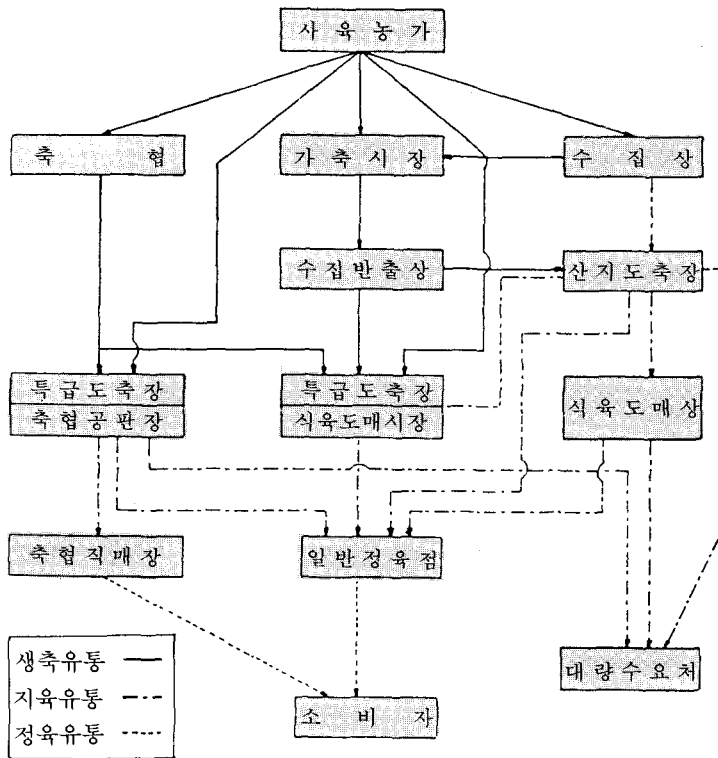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자 형태가 생축가격변동에 따르지 않는 단일된 가격질서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변칙된 거래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

서로의 모순된 유통의 위치에서 가격의 자율화(부위별 차등제)는 소비자, 생산자, 정육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생산자는 자기의 사양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육 생산적으로 적합한 가격판정과 그에따른 이익을 배당받고 활성화된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고 소비자는 육질과 부위에 따른 임의의 선택에 의한 자유가격을 가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소비자 인식수준을 상승 단일화된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선택으로 상품지식과 정육의 위생상태및 부정육의 확인등 정육점의 시설개선과 의식고취등 서어비스 측면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보다는 소비층확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3者是 가질수가 있으며 또한 쇠고기에 편중된 식육



※ 유통경로(소 및 쇠고기)



관을 이기회에 정확히 홍보와 인식제고를 하고 이에 정부는 일본과 같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차이를 크게 하거나 수입우육과 한우육의 가격차가 심한 데서 기인된 위장판매등

의 일원화된 유통에서 선별적인 기각을 갖고 공신력있는 축협이나 메이커의 유가공업체에서 큰 몫을 담당.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시스템의 통합된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연동제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상정된 바, 식육산업에서 부위별 차등가격제는 자리를 다지기에 필요성이 재차 증가된다.

육류 소매가격 변천사에서도 보듯이 더 나은 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자리를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유통의 각 관계자나 단체들은 지속적인 교육·홍보사업과 충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갖고서 긴 10년의 안목으로 인력의 확보와 유통행정의 일관된 통합화·체계화를 실천하여 육류소비층의 확대와 차등제에 따른 유가공업제품의 원가절감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다각적인 소비를 창출 유도하므로써 각 유통주체가 목만 매고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 유통개선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유통주체 생산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유통효율화 방안을 자구책으로 실현하여 국가의 주도하에 생산자 소비자 유통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경제발전의 유통산물이 정착될 것임을, 이것이 식육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 바이다.